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96

1 국제교류원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

- 아마미 오시마의 대자연 그리고 전통의 울림을 찾아서 Part.1

2 지사 관련 새 소식

- 무극(舞劇) 「붉은 따오기」가고시마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3월 8일)
- 가고시마 가다랑어 PR 프로젝트 위원회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3월 17일)
- 가고시마 하와이라니 실행위원회 대표 등이 방문하였습니다. (3월 19일)

3 가고시마 관광 정보

- 가고시마 마라톤(3월 2일)
- 가고시마 현내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월말부터 4월초순)

국제교류원의 칼럼

●아마미 오시마의 대자연 그리고 전통의 울림을 찾아서 Part.1●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토우 레이카(중국출신)-

눈 깜짝할 새 3월이 되어, 1년간의 국제교류원 생활을 마무리해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고시마현청에서 일을 하면서 몇번이나 가고시마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두 곳의 세계 자연 유산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귀국하기 전에 꼭 그 세계 자연 유산의 매력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에, 가고시마현의 낙도에 취재를 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에 세계 자연 유산에 등록된 「아마미 오시마 도쿠노시마 오키나와 북부 및 이리오모테지마」중 하나인 아마미 오시마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취재는 가고시마 국제대학 경제학부의 고쥬 선생님과 타이밍이 맞아 동행하였습니다. 비행기는 약 50분간 바다 위를 날았고 아마미 오시마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에메랄드색 바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와 고쥬 선생님은 첫 아마미 오시마 방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안고 아마미 파크로 가는 버스에 탔습니다. 아마미 오시마는 굉장히 따뜻한 기후로 승객 중에는 3월인데도 반팔을 입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미 파크에



「아마미파크」의 입구

내려야할지 아마미파크 입구에서 내려할지 고민하고 있었더니, 버스에 있던 남성분(이 분도 반팔이었습니다☺)이 친절하게 아마미 파크에서 내리는 것이 가깝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마미 파크에서는 아마미의 아열대 식물을 감상할 수 있으며 「아마미의 사토」나 「다나카 잇손 기념 미술관」 등 시설도 있습니다. 「아마미의 사토」에서는 아마미의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 역사, 민속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아마미의



파인애플 같은 판다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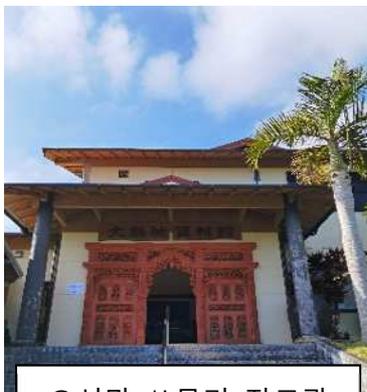
전통적인 연중행사를 소개하는 전시관이 아주 흥미로워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미의 전통 행사는 대부분이 음력에 이루어지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대하게 열리는 것이 음력 8월 15일 「십오야 풍년제」입니다. 십오야 풍년제는 1년간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축하함과 동시에 마을의 무병과 건강에 감사하는 행사입니다. 이날에는 중국에서도 「중추절」이라고 하며 보름달을 즐기며 가을의 농작과 가족의 행복을 비는 「십오야 풍년제」와 아주 닮은 전통적 행사가 열립니다. 「십오야 풍년제」이외에도 40장 이상의 행사 사진이 전시되어 있어 도민(島民)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전해져 왔습니다.

또한 아미미 파크의 한 쪽에는 다나카 잇손 기념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미미에서는 다나카 잇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아미미의 자연을 사랑하고 아열대 식물이나 꽃, 새 등을 날카롭게 관찰하여 뛰어난 그림을 그려내 독특한 작품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미술관에서는 다나카 잇손의 작품 뿐 아니라 「아미미에게」라고 하는 아미미에 관한 작품 전시회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파크 내의 건물

아미미 파크의 기념품으로 다나카 잇손의 작품이 그려진 엽서를 구입했습니다. 당일 파크 내 홀에서는 아미미 파크 봄 축제 「산가츠산치」를 위해 연주회가 개최되어 그곳에서 시마우타(섬의 전통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시마 쓰무기 자료관

아미미파크의 시찰이 끝나고 쓰치하마역 근처에 있는 「오시마 쓰무기 자료관」과 「오시마 쓰무기 미술관」을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쓰무기와 베틀을 보여주며 오시마 쓰무기의 복잡한 제작 공정을 알기 쉽게 소개해주셨습니다. 오시마 쓰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30 개 이상의 세세한 공정이 필요하며 1反(기모노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의 천)의 직물을 완성하기까지 수십명의 장인이 반년에서 1 년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에 감탄하고 있을 때 오시마 쓰무기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 안내를 위해 나와주셨습니다.

오시마 쓰무기 미술관은 광대한 바다와 접해있으며 리조트 호텔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홀에서는 파란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릴 정도로 좋은 곳이었습니다. 2층 미술관에서는 다나카 잇손의 명작을 모티브로 수놓은 오시마 쓰무기가 예술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본고장 오시마 쓰무기에 접할 수 있고 직물을 사용한 기모노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본고장 오시마 쓰무기는 가볍고 움직이기 쉽고 또 통기성과 보온성이 뛰어나며 주름이 잘 지지않아 오래 보관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높은 가격에는 이 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다나카 잇손의 그림을 사용한 오시마 쓰무기

첫째날 취재를 마치고 아마미 시내로 이동하였습니다. 저녁식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던 중 「기타하치」라는 섬 향토요리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해산물,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흑설탕 디저트까지 만족스러운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를 나오기 전 종이접기로 만든 기모노에 들어있는 이쑤시개와 명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귀여운 이쑤시개를 사용하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기념품으로 가져왔습니다.



종이로 접은 기모노에 들어있던 이쑤시개

둘쨌날은 아마미 흑당 소주「용궁」을 제조하는 도미 타주조에 견학을 갔습니다. 4대 사장이 75 주년을 맞는 회사의 역사와 흑당 소주 제조 공정에 대해 설명 해주었습니다. 흑당에 대한 비법 중 하나인 큰 탱크 대신 항아리를 사용하여 원래 있는 균들을 활용하여 쌀 누룩을 발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항아리에서 발효하는
흑당소주

이 때문에 항아리마다 소주의 맛과 향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소주에 관한 지식을 또 하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흑당소주의 양조장 견학을 끝내고 오시마지청 직원의 안내로 「아마미 세계 유산 센터」와 「쿠로시오 숲 맹그로브파크」로 향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아마미 오시마의 숲을 재현한 전시관이나 아마미의 상징인 아마미검은멧토끼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진화를 해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실 견학 후 쿠로시오의 바다에서 카누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서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실제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처음에는 노를 젓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방향 컨트롤이 힘들어 서로



선두에 선 우리의 카누

부딪히곤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저와 같이 탄 고쵸 선생님과 동시에 같은 쪽으로 저으니 카누가 점점 앞으로 나아가 행렬의 선두로 나갔습니다. 역시 힘을

함께 하나가 되어 노를 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도중부터 물길이 여러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일부 물길은 태평양 쪽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계일주 여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이드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편 만의 안 쪽은 조용하고 바닥이 보일 정도로 물이 깨끗했고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바람과 파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30 분 후 목적지에 도착해 가이드님이 기념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마침 물때 시간으로 왔던 길보다 훨씬 좁아져 육지부분이 늘어난 것이 보였고, 검은 진흙에서 게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

우리들은 백로와 물 속의 물고기를 보며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카누체험은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힐링할 수 있는 멋진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호 (197 호)에 이어서...

지사의 움직임

● 무극(舞劇) 「붉은 따오기」가고시마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3월 8일)●

무극(舞劇) 「붉은 따오기」을 감상하였습니다. 중일우호를 상징하는 따오기를 모티브로 하는 이 공연은 양국 우호의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며 중국과 일본에서 공동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대사나 노래 없이 신체표현과 무대 예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무대는 무용수들이 보여주는 탁월한 무용기술과 신체의 아름다움에 빨려 들어가는듯 하는 압권의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상하이 가무단의 여러분들은 실제로 동물원에서 관찰한 따오기의 움직임을 표현에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공연을 통해 중일 양국의 우호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상하이가무단 여러분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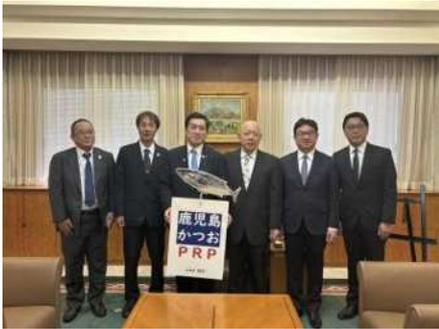
▲무극 「붉은 따오기」의 모습

●가고시마 가다랑어 PR 프로젝트 위원회 여러분들이 방문하였습니다(3월 17일)●

현재 가다랑어 관계 사업자 여러분들이 「가고시마 가다랑어 PR 프로젝트 위원회」의 발족을 보고하기 위해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발기인 대표 야마미수산

유한회사 야마구치 켄이치로 대표는 「가고시마, 마쿠라자키, 야마카와 3 향의 관계자가 하나가 되어 가다랑어나 가츠오부시를 널리 알리고 더욱 활성화시키고 싶다」라며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또한 아침에 잡힌 가다랑어의 회와 가츠오부시를 사용한 차부시(가고시마의 향토요리), 가다랑어를 사용한 고로케를 시식하였습니다. 가다랑어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었으며 매우 맛있었습니다. 위원회 여러분들이 하나되어 현에서 생산되는 가다랑어 등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힘 써주시고 현 내외, 그리고 해외에도 가고시마 가다랑어를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가다랑어 PR 프로젝트 위원회와



▲가다랑어 관련 상품을 시식하는 모습

●가고시마 하와이라니 실행위원회 대표 등이 방문하였습니다. (3월 19일)●

예술을 통해 가고시마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리는 가고시마 하와이라니 실행위원회의 이마바야시 대표와 하와이의 저명한 3D 아티스트 테렐 포터씨가 이벤트의 보고를 위해 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이벤트에서 처음으로 가고시마에 방문한 포터씨는 가고시마를 아주 마음에 들어했으며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가고시마에 방문하여 예술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포터씨는 많은 관광객이 보는 가고시마공항 스카이데크의 벽면에 조몬스기나 인노쵸후타, 바다거북이 등 가고시마현의 낙도들의 매력에 관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작품을 본 많은 분에게 가고시마현의 매력을 전하고 동시에 이 이벤트가 가고시마현 관광 진흥과 마을 만들기의 추진에 도움이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마바야시대표, 포터씨와 대화하는 모습



▲가고시마공항 스카이데크에 그려진 포터씨의 벽화

관광 가고시마 제철 정보

●가고시마 마라톤 (3 월 2 일) ●

가고시마 마라톤은 사쿠라지마와 긴코만을 수놓은 웅대한 풍경과 현내 최대 변화가인 텐몬칸, 메이지시대 산업혁명유산, 사이고 다카모리 동상 등 가고시마의 거리를 가고시마현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통해 가고시마의 매력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회입니다.



▲ 당일 러너들의 모습과 응원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고시마 마라톤 실행 위원회 사무국」

●가고시마 현내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3 월말부터 4 월초순)●

가고시마시 요시노 공원을 시작으로 이사시(市)의 타다모토 공원, 이치키쿠시키노시(市)의 간노가이케 시민의 숲, 사츠마센다이시(市)의 닛타신사 등, 현 내 각지에서 벚꽃이 만개하여 벚꽃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이트업이나 야시장 등 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 타다모토 공원 내의 벚꽃 길
「©ULTRA-C」

